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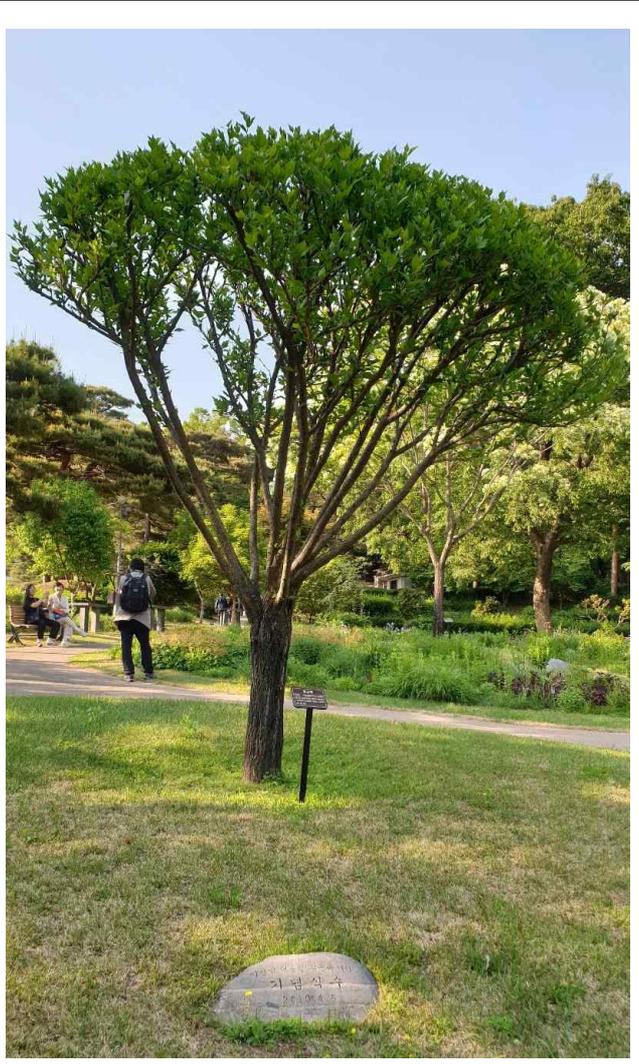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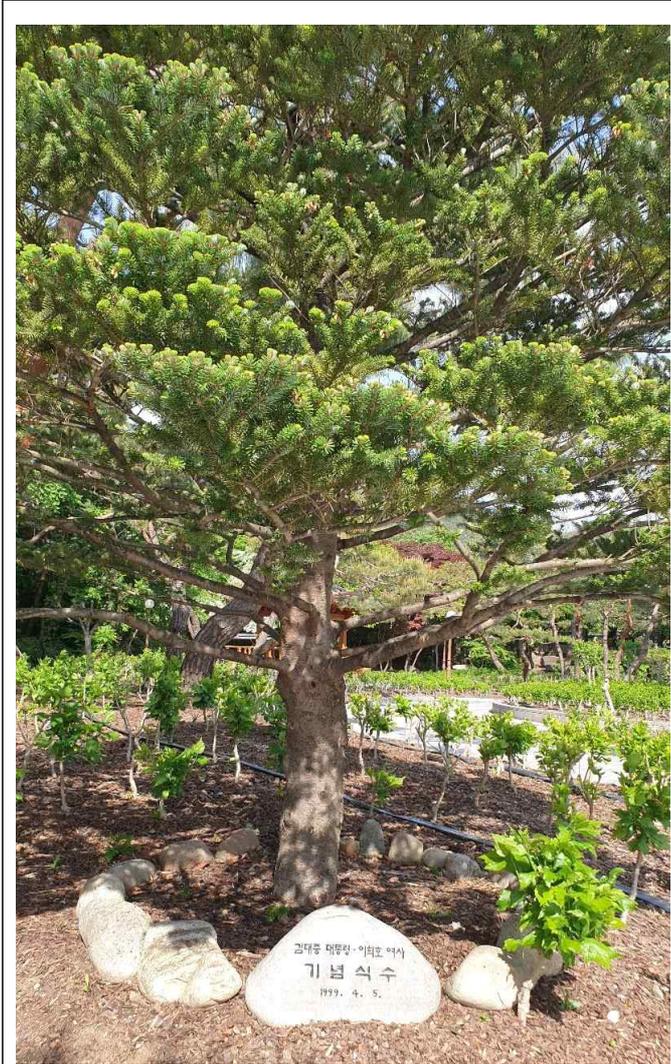
2022년 식목일 즈음해서 운동주문학관 위 시인의 언덕 시비 옆에 나타난 화강암 덩어리 기념식수비!!!! 좌측 검재 정선의 장안연우를 그린 장소를 나타내는 안내판과 우측 운동주시비 사이에 딱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념비인가 보니, '전통과 문화의 종로 미래를 여는 의회-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식목일에 매화나무(홍매화)를 심으면서 세운 비였다! 8대 의장을 포함하여 의원 전체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군요!!!



역대 대통령들도 기념식수를 하고 나서 기념비는 주변과 자연과 어울리게 세웠습니다.



무궁화동산 김대중 부부 기념식수
 청와대 이명박 부부 기념식수
 청와대 전두환 부부 기념식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미래를 연다는 구의회가 이렇게 시작하면 앞으로 9대, 10대 구의회가 다 이렇게 기념식수비를 남겨야 하는 것
 일까요? 이런 발상을 한 구의회는 반성하고 바로 철거하십시오!
 기념식수비는 주변과 어울리지도 않으며, 심은 매화나무가 이 장소에 적절한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 장소는 진경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이 '장안연우'를 그린 장소로 발아래 경북궁 일대가 보이는 장소입니다. 시간이 지나 자
 란 아까시나무로 여름에는 그 경관을 보기가 힘들어 공원녹지과에서도 나무를 전지하는 상황에 이 곳에 다시 기
 념식수라니요!!! 이 언덕이 구의회 소유도 아닌데, 방문객들 많은 곳에 세워 홍보효과를 누리려볼 계산이었을까요?
 바로 철거해주십시오! 구의회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행정부에 다시 민원을 접수하겠습니다.